

아베 가문 주택

아베 가문 주택은 오모리에서 가장 커다란 무사 가문 저택 중 하나로 1800 년 마을의 대부분을 태운 화재에서도 살아남은 매우 드문 건축물입니다. 1601 년 은광의 초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로서 은광을 감독했던 오쿠보 나가야스(1545~1613)는 아베 세이베에에게 이와미 은광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기기 위해 가이국(현재의 야마나시현)에서 그를 불러 들였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세이베에 이후 대대로 은광 경영에 깊숙히 관여하며 부유하고 강한 영향력을 휘둘렀던 아베 가문을 위해 1789 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세이베에의 후손들은 회계를 비롯해 갱도와 갱구에 지하수가 흘러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20 년대에 만든 신키리 갱도의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앞뜰, 산가와라부키 지붕(파도가 치는 듯한 모습의 기와 한 종류를 겹겹이 포개어 나란히 이은 지붕으로, 권위를 내보이려는 무사 가문에게 선호됨), 두 개의 현관 등 지위가 높은 무사 가문에 어울리는 집의 전형적인 특징을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작은 현관은 거주자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우측의 커다란 현관은 다다미가 깔린 두 개의 방으로 연결되어 중요한 손님이 오실 때만 열렸습니다. 원래의 문은 뒤편의 건물과 함께 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되다가 1950 년에 헐렸습니다. 아베 가문 주택은 현재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근에 자리한 에도 시대(1603~1867)의 농가는 숭, 카페,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